

비일상적 감각으로 깨우는 '음식'의 세계

영국 화제의 연극 '푸드' 오리지널 투어팀 광주 공연...내달 19-21일 ACC 예술극장1 '관객 참여형 무대'



연극 '푸드'의 창작 및 연출가이자 유일한 출연자인 제프 소벨



관객 참여형 연극 '푸드(FOOD)' 공연 모습

ACC재단 제공

극장에 차려진 대형식탁. 그리고 이곳에 둘러앉은 관객들이 메뉴를 주문하고 배우가 따라주는 와인을 마신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 재단)은 다음달 19-21일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이색적인 관객 참여형 연극 '푸드(FOOD)'를 선보인다.

'푸드'는 영국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과 뉴욕 BAM 페스티벌 전회 전시 매진을 기록하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은 화제작이다.

'푸드(FOOD)'는 '왜 먹는가', '무엇을 먹는가', '음식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일상 속 음식을 비일상적인 감각으로 깨워주는 특별한 저녁 식사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가변형 극장인 ACC 예술극장 극장1은 이번 공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무대다. 가로 20m, 세로 21m의 대형 식탁이 설치되며 식탁을 둘러싸고 30명의 관객이 테이블석에 착석해 공연을 함께 만들어간다.

무대 위에는 하얀 식탁보로 덮인 대형 식탁이 놓이고, 아티스트이자 미술사로 활동 중인 제프 소벨(Geoff Sobelle)이 웨이터로 등장한다.

식탁을 둘러싸고 앉은 관객들은 웨이터가 따라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메뉴를 주문하는 등 배우와 함께 공연을 만들어간다.

냄새, 맛, 감촉 그리고 먹는 행위와 방법 등으로 관객과 소통하며 음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일

깨워 줌으로써 지금까지 당연히 여겨왔던 일상의 경험에 대한 물음표를 던진다.

이번 무대를 위해 수백 개의 플라스틱 조각으로 완성된 화려한 상들리에와 150여 개의 다양한 소품, 공연 당일 공수되는 20여 종의 신선한 음식이 투입된다. 또한 배우의 감정과 공연의 생동감을 전달하기 위해 숙련된 통역사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푸드'의 창작 및 연출가이자 유일한 출연자인 제프 소벨은 이번 연극 이전에도 일상적 주제의 비일상성에 대해 탐험하는 시리즈 작품을 선보여왔다.

가장 처음 탄생한 '디 오브젝트 레슨(The Object Lesson) 2013'는 일상 속 '사물'을, '홈(HOME)

2017'은 일상의 근거지인 '집'을 조명해 세계 무대에서 각종 상을 휩쓸었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국제적으로 화제가 된 '푸드(FOOD)' 오리지널 투어팀의 아시아 초연이 성사돼 기쁘다"며 "ACC 초이스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수준 높은 작품을 지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CC 초이스 '푸드(FOOD)'는 다음달 19일 오후 7시30분, 20일 오후 2시와 8시, 21일 오후 2시 등 총 4회 진행된다. 관람료는 테이블석 6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이다. 예매는 ACCF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시대'를 더한 수묵 '공존의 싹'을 보다

금봉미술관 기획전 '남도수묵'展...오는 31일까지

새로운 문화의 범람 속 기존 전통수묵화 작가들의 창작세계가 위축되고 있다. 남도수묵화 정신과 필법 등 전통의 맥을 살리는 동시에 여기에 내재된 시대적 한계를 인정하고, 수묵화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김인화작 '무안해변'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 남도수묵화의 맥을 이으며 창작활동 중인 남도수묵화협회 회원전이 마련됐다.

오는 31일까지 금봉미술관 1전시실에서 열리는 기획전 '남도수묵'전이다.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연령층 작가들이 참여한다.

전통에 초점을 맞춘 수묵화 작품과 기존 수묵화를 독창적으로 재해석한 청·장년 작가들의 작품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존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 회원들은 판

매년 작품 중 일부 금액을 취약계층 후원 기금으로 활용해 더불어 사는 나눔의 문화를 실천할 예정이다.

참여작가는 김인화·박광식·이민식·백계철·박진수·김재일·배교연·정평남·차숙자·김경숙·홍정남·김은자·지용현·양동연·홍성국·안용욱·김정욱·임경욱·홍정호·김광욱·김형진·이윤·김금옥·심강식·곽수봉·양정숙·이선복·이경민·고미아 등 29명이다.

/최명진 기자



라이브 국악뮤지컬 '깨비 친구 삼살이'

16일 남도국악원 토요일상설공연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6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아트컴퍼니 행복자 초청공연 LIVE 국악뮤지컬 '깨비 친구 삼살이'를 선보인다.

아트컴퍼니 행복자는 예술이 인간과 환경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라는 예술가들이 모인 전문예술단체다.

공연은 도심 속에서 외롭게 홀로 있는 삼살이가 돌풍을 만나 다양한 곳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만난 흑부리 아저씨, 도깨비들과 친구가 되는 국악 뮤지컬이다.

'공존'을 주제로 단절된 세상, 서로 경계하며 웃음을 잃어가는 시대에 함께 공존해 살아가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연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남도국악원 장악과(061-540-4042)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전남문화재단, 2024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공모

7개 기관 38명 예술인 대상

전남문화재단이 '2024 전남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과 예술인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 공모 대상은 7개 기관과 예술인 38명(리더예술인 7명, 참여예술인 31명)이다. 기관과 리더 및 참여

예술인의 매칭으로 협업사업을 6개월간 수행하게 된다.

기관에는 예술을 통한 이슈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기회를 제공하며, 예술인에게는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로서 사업 목적에 맞는 다양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돕는다.

사업 참여 기관과 예술인은 오는 5월

부터 6개월간 월 10일, 30시간 이상의 예술협업 활동을 수행한다. 리더예술인은 월 140만원(연 840만원), 참여예술인은 월 120만원(연 72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 받는다.

기관의 경우 도내 소재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업이나 마을 등 단체여야 하며, 예술인은 전남

도내 거주 중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기관의 경우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이며, 예술인은 오는 27일부터 4월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역의 기관과 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의 힘으로 동시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NH NongHyup 지리산마천농업협동조합

석양 방목한 100% 국내산 흑염소로 만든

지리산 마천 농협 명가 흑염소 진액

흑염소 외 21종의 국내산 재료를 넣어 정성을 다해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오가피나무

뽕나무잎

침뿌리

하수오덩이 뿌리

대추

천궁

지리산 마천 농협 흑염소

- 01 국산 흑염소**
국내산 방목 흑염소
- 02 흑염소 특유의 잡내 NO!**
흑염소 특유의 냄새를 잡아주어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습니다.
- 03 3중 저온추출방식!**
3중 저온 추출방식으로 고농축액기스입니다.
- 04 흑염소 추출액 무려 81%**
장시간 정성을 다해 달여 진합니다!

지리산 마천 농협 명가 흑염소 진액
70ml X 30포(1개월분) X 4박스(4개월분) + 체험분 5포

4개월분 139,000원

드시보신 분들이 인정해주시는 지리산 마천농협 흑염소진액

HS 호성유통 (유통전문업체) **제품구입문의** 062.373.0706 **계좌번호** 국민은행 : 772601-01-774187 **예금주** : 배정하(호성유통)